

정동영 통일부 장관, 유럽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추진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9월 28일(월)부터 10월 5일(월)까지 6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과 아일랜드,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공식 방문한다.
 - 이번 방문은 유럽의 갈등 조정과 평화 정착, 상호 공존의 경험을 살펴 보고, 우리 정부의 ‘한반도 평화공존 정책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.
- 정 장관은 먼저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을 거쳐 아일랜드를 잇달아 방문해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킨 과정과 경험을 살펴본다.
 -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주요 인사와 과거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만나고, 평화 관련 시설을 방문해 「북아일랜드 평화협정」(「성 금요일 협정」 또는 「벨파스트 협정」)의 추진 과정과 갈등 극복의 역사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.
 - 이어 아일랜드에서는 국제분쟁 중재 전문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분쟁 조정과 평화 제도화 경험을 공유한다.
 - 또한,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재학생들이 주축이 된 국제정치학회(SOFIA)의 초청으로 ‘한반도 평화공존’ 특별강연을 진행하고,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.
- 정 장관은 이어서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되는 「제36주년 독일 통일의 날」 기념식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.

* ‘독일 통일의 날’ 기념식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선포 이후 매년 16개 연방주가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, 올해 행사는 브레멘(Bremen)에서 “VIELE STÄRKEN-EIN LAND”(“다양한 강점, 하나의 나라”)를 슬로건으로 개최

- 정 장관은 기념식에 앞서 행사를 주관하는 연방상원의장 겸 브레멘 시장과 만나 축하인사를 전하고, 한반도 평화 증진과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독일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독일의 주요 정·관계 인사들과 만나 동서독 간 교류협력 확대와 긴장 완화 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,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.
- 통일부는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유럽의 다양한 평화 정착과 공존 경험을 직접 확인하고, 이를 ‘한반도 평화공존 정책’에 참고하는 한편,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- 통일부는 이번 방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,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	책임자	과 장	서영신 (02-2100-2370)
		담당자	사무관	노일준 (02-2100-2372)

